

“제구만큼은 자신...PS 마운드 서고 싶다”

“캠프서 부족한 체인지업 연마 목표
선배님들 운동루틴 등 배울점 많아”

2020시즌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
로 야기 독수리가 된 신인 한승주를 스프링
캠프 출국 전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인
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만날 수
있었다.

한승주는 이번 스프링캠프 명단에 포
합돼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로 떠났
다. 한화 이글스는 신인 3명(신지후, 남
지민, 한승주)을 데려갔다. 한승주는 그
만큼 한화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.
난생 처음 해외로 나가는 한승주는 “해
외는 처음이라 기대됩니다. 선배님들과
운동하면서 운동 루틴 등 배우고 싶은
것이 많습니니다”라며 스프링캠프에 대한
기대감을 드러냈다.

한승주와 야구의 만남은 다섯 살 때였
다. 야구를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
다. “부모님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
셔서 제가 선수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
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.”

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던 것은 초
등학교 3학년부부터였다. 투수를 처음 시
작했던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. “수영초
감독님이신 김상현 감독님께서 제 투구
폼이 예쁘다고 하셨어요. 원래 아주만 했
는데 그때부터 투수도 같이 했습니다.”



2020시즌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에서 야기 독수리가 된 신인 투수 한승주가 훈련 중 와인드업
사진제공 | 한화 이글스

예쁜 투구폼과 일정한 릴리스 포인
트 덕에 제구력이 좋은 투수로 평가받는
한승주는 2019시즌 7승 2패, 평균자책
점 0.98, WHIP 0.69로 최고의 해를 보
냈다.

“고등학교 1·2학년 때 체격이 작아서
몸 관리에 집중했습니다. 무리하지 않고
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. 3학
년 때 김상현 감독님, 김수형 코치님께
서 관리를 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

같습니다.”

한승주가 가장 강조하는 투수의 기본
자세는 ‘자신감’이었다. “마운드 위에서
자신이 없으면 일단 타자에게 지고 시작
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항상 자신
감을 갖고 마운드에 올라갈 겁니다. 자
신감과 제 장점인 제구를 앞세워 타자들
을 잡아보고 싶습니다.”

야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
로는 황금사자기 1차전인 경남고등학교
와의 경기를 뽑았다. “경남고와의 경기는
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
니다. 제 라이벌이자 친구인 준용이와의
경기였는데 7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
됐습니다. 3학년이 될 때까지 경남고 경
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열심히 운동
했던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.”

스프링캠프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것
도 잊지 않았다. “캠프에 가서 부족한 체
인지업을 실전에서 통할 수 있도록 연마
해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. 앞으로 무리
하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다.”

한승주는 인터뷰를 마치고 “지금까지
땀바라지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, 팬
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행복한 야구를 보
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2020시즌
포스트시즌 마운드에서 던져보고 싶습
니다”라며 첫 시즌을 임하는 각오를 전
했다. 권유성 명예기자(남서울대 스포츠비즈니스 전공)
dlackddy97@naver.com

유소년 선수 뇌 질환 예방 ‘논 헤더 풋볼’ 전세계 확산

(헤딩 없는 축구)

유소년 선수의 ‘헤딩 없는 축구, 논 헤더
풋볼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.

논 헤더 풋볼에 대해 가장 논의가 활발한
국가는 스코틀랜드다. 지난해 4월, 명문 클
럽 셀틱의 레전드였던 빌리 맥널이 차머로
별세하고 10월에는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
이 헤딩을 사용하는 축구선수가 일반인과
비교해 뇌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
구 결과가 나오면서 아직 성장이 완벽히 이
뤄지지 않은 어린 선수들이 헤딩을 사용하
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의 압
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.

잉글랜드 축구협회(The FA)는 올해 안
으로 U-18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
서 헤딩 훈련을 제한하는 규칙을 도입하겠
다고 했다. 벨기에 축구협회는 더 나아가
12세 이하 선수들은 무릎 이상으로 공을 띄
우는 걸 금지하고 있다. 미국에서는 세
계에서 최초로 2014년부터 저연령 선수들의
헤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.

헤딩과 뇌 질환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 및
사례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. 지난 2002년,
59세의 나이로 사망한 잉글랜드 축구선수
제프 에슬의 사인이 만성 외상성 뇌 질환으
로 밝혀지기도 했다. 제프 에슬이 뛰어난 헤
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
는 점이 알려져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.

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론도 있지만
국내에서도 대한축구협회(KFA)에서 앞장
서 헤딩 금지 조항을 포함해 유소년 선수
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
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전현우 명예기자(명지대 정치외교 전공)
hwjin@mju.ac.kr

부상 또 부상...필 존스, 실패한 퍼거슨의 유산

(맨유 수비수)

맨유 수비의 미래 평가 받으며 입단
총 39차례 부상 발목...경기력 하락

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알렉스 퍼
거슨은 이 선수를 두고 “맨유 역사상 최고
의 선수가 될 것”이라고 자신했다. 현 잉글
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인 사우스게이트는 몇
년 전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“잉글
랜드 최고의 수비수”라고 말했다. 그는 올
해 여름 맨유에서 뛰던 지 10년이 되는 필 존
스이다.

한때 잉글랜드 축구를 이끌 미래라는 평
가를 들던 그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

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팬들 사이에서 조롱
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. 맨유에서 10년
이상 뛰던 선수에게 주어지는 기념경기 권리
에 대해 그는 “부모님 말고 누가 오겠냐”며
거절했다.

최근 몇 년간 필 존스가 보여준 경기력
은 매우 실망스러웠다. 특히 이번 시즌은
몇 차례의 호러쇼를 보여주며 완전히 주전
경쟁에 밀린 모양새이다.

지난해 11월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세
필드 유나이티드전은 리그 첫 선발로 나
온 경기였지만 선제골을 헌납하게 되는 결
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. 결국 전반전이 끝
나자마자 교체되었다.



필 존스

필 존스는 이번 시즌 리
그 2경기과 유로파리그
2경기를 포함해 10경기도
채 뛰지 못하고 있다. 한
때 맨유의 수비진을 짊어
질 미래라고 평가받았던
그로서는 매우 아쉬운 상
황이다.

필 존스는 2002년 블랙번 FC의 유스팀
에 입단했으며 이후 성인팀에서 두각을 나
타냈다.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맨유의 레
이더망에 포착되어 2011년 여름 1650만 파
운드의 이적료로 맨유로 오게 되었다. 이후
몇 시즌 동안 공에 대한 투지와 몸을 사리
지 않는 플레이를 앞세워 수비진의 멀티플
레이어로 활약을 펼쳤다. 잉글랜드 국가대
표로 뽑히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8

년 러시아 월드컵에도 출전하였다.

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. 햄스트
링, 골반, 발가락, 어깨 등 다양한 부위에
39차례에 달하는 부상을 겪은 그는 총 1129
일을 쉬었다. 부상과 함께 경기력의 하락을
보였고, 이번 시즌에도 폼을 회복하지 못하
면서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.

현재 필 존스는 맨유의 마지막 리그 우
승을 경험한, 팀에서 가장 오래 뛰고 있는
선수이다. 1992년생인 그는 27세로 아직 젊
다. 지난해에는 팀과 2023년까지 재계약을
체결했다. 그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실패
했다는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까.

김주환 명예기자(국민대 KIBS 전공)
jo0971017@naver.com

편집 | 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

매콤한 감칠맛 **착한코다리**

MBC 생방송 오늘저녁에 나온 코다리 대박 맛집

300만원착한전수창업

업종변경/추가메뉴/신규창업
운영노하우/코다리조림 레시피 전수
체계적 교육으로 완벽 창업지도

가맹비/인테리어/로열티 무

유튜브 : 착한코다리
본점: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6 201호
상담문의 010-6361-2342